

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(**한경BUSINESS** 국제면 기고)

법무법인 지평지성 '글로벌 비즈니스 센터'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'한경비즈니스' 국제(Global)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러시아, 일본, 브라질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태국,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.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.

[브라질]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는 브라질, 전국 몸살...폐기물 처리업 전망 '굿'

브라질 전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. 브라질 특수 및 일반 폐기물처리업체협회(Abreipe)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이 하루에 1인당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2009년에 이미 1.152kg에 이르러 1.2kg인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. 2010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6000만 톤 정도로 전년 대비 1.8%나 증가했다. 최근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따라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포장지와 같이 썩지 않는 폐기물이 늘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.

배출된 폐기물 중 10%는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 중 42%가 부적합한 지역에 매립됐고 재활용률은 2%에 그치고 있다.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논의됐던 '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'을 극적으로 통과시켰고 2010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...(중략)

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, 중남미팀장

- [제867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](#)